

2024년 예술지원 통합공모 2차 예술기반지원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최종 심의결과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최종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최종 심의결과

☐ 최종 선정결과 : 총 20건 선정, 197,030,000원 지원 결정(선정률 10.3%)

분야	접수건수(건)	최종선정건수(건)
연극	40	4
무용	35	4
음악	79	8
전통	40	4
합계	194	20

☐ 최종선정자 명단 * 분야별 관리번호순

분야	관리번호	선정자명	대표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연극	202407962	신정철	-	'극단 모시는사람들 그리고 김정숙' 다큐영상	10,000,000원
	202408398	배소현	-	연극<정원사와의산책> 창작을 위한 워크숍 과정 배리어-컨서스 다큐멘터리 <퀴어×장애×정병의 교차로를 산책하기>(가제)	10,000,000원
	202409753	예술공방 파피루스들	김홍섭	공연창작과정 다큐멘터리 영상_예술공방 파피루스들	10,000,000원
	202410094	무브먼트 당당	김민정	무브먼트 당당의 25년 간의 작업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무브먼트 당당 - 머물지 않는 사람들" (가안)	10,000,000원
무용	202408079	블루포엣 (BluePoet)D.T	예효승	블루포엣무용단 <미완성 몸> 소개 영상 제작	10,000,000원
	202408667	조용민		Drifting(표류)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10,000,000원
	202409035	전복된 해부학적풍경	배진호	2024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9,000,000원
	202409533	온앤오프(On&Of)f 무용단	한창호	흙의 몸	10,000,000원

분야	관리번호	선정자명	대표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음악	202407258	백운정	-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10,000,000원
	202408493	양선용	-	양선용 프로젝트 - 소리와 감각 그리고 음악	10,000,000원
	202408521	시나쓰는앨리스	한상훈	‘꿈의 소음’ : 현대인 앨리스를 찾아서 (가제)	8,030,000원
	202408668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홍기	오케스트라 하우스오픈(Orchestra House Open) : 제6원소	10,000,000원
	202409054	김재훈컴퍼니	김재훈	공연 제작 필름 <P.N.O>	10,000,000원
	202409303	서울아트랩	김서현	전자음악 창극 창작 과정 다큐멘터리	10,000,000원
	202409667	사맛디	하택후	1인칭핸드팬시점 - 사물의 기억	10,000,000원
	202410893	프로젝트양상블원 (Projectense)	봉하륜	소리도둑	10,000,000원
전통	202407489	(사)노름마치예술단	김주홍	국제협업 플랫폼 SSBD, 10년의 여정 다큐멘터리	10,000,000원
	202408686	4인놀이	유혜정	4인놀이 단체활동 소개 영상 제작	10,000,000원
	202408950	THE 광대	안대천	2024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_ 연희집단 The 광대	10,000,000원
	202409582	이희문 컴퍼니	이희문	이희문의 로고로그	10,000,000원

2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총 194건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진행 방식, 심의 사후관리 등 심의운영절차는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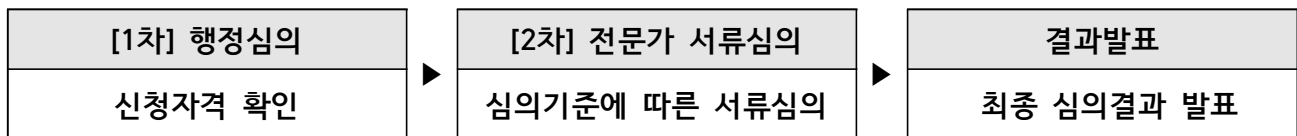
○ 「2024 서울문화재단 통합 심의위원풀」 내 장르별 전문성 및 성비, 세부분야 등 고려하여 3배수 이상
심의위원 풀을 구성함

- 구성된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천방식을 통해 심의위원 섭외순위를 확정하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참관을 통해 추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 확정된 우선순위 및 구성기준을 고려하여 섭외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제척사항 및 기피/회피 해당 여부 등을 공정심의 이행각서와 청렴서약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함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심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심의를 진행함(심의 전과정은 상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함)

□ 심의위원 명단

분야	심의위원
연극	김정(연출가), 문삼화(연출가), 차근호(극작가), 이은경(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김정아(배우)
무용	장은정(장은정무용단 대표), 이정윤(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정형일(정형일 Ballet Creative 대표), 조은경(평론가, '월간 춤' 주간), 이종호(서울세계무용축제 예술감독)
음악	박혜진(서울시오페라단 단장), 공기태(창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윤하(음악평론가), 박문선(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 이민희(음악평론가)
전통	조주선(국악인, 한양대 국악과 교수), 황민왕(타악연주자, 블랙스트링), 안덕기(한국무용가, 한예종 무용원 교수), 송지원(음악인문연구소 소장), 서승미(대금연주자, 경인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 심의절차



□ 심의기준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적정성	15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우수성 및 충실성	35	- 예술인(단체)의 작업세계와 역량을 담기 위한 기획이 독창적인가 - 동시대 예술계의 흐름을 담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실행가능성	30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획은 적절한가 -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세워졌는가
기대효과	20	- 결과물의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결과물을 통해 예술인(단체)의 활동의 확장이 기대되는가

□ 추후 이메일을 통해 교부신청 안내

- 이메일 발송 후 안내문자 발송예정이며, 확인 후 교부신청 진행
※ SCAS에 지원신청 시 작성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안내 예정

□ 사업포기 신청 :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5.10.(금)까지

- 선정자가 부득이한 사유 및 중복사업 선정 등으로 인해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해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함
-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 시 차기년도 재단 동일 지원사업 신청 시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 차순위 예비선정자 통보

- 사업포기 기한 내 중복선정, 사업포기, 선정 취소권 발생 시 예비선정이 결정된 후보자 내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하며, 추가 선정자에게는 ~5.17.(금)까지 개별 연락 예정

□ 동일사업 중복선정에 대한 처리

- 2024년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 받을 경우에는 수행할 사업을 택일하여 사업포기기한 내에 재단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중복선정이 확인될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사항 발생 사업에 대한 처리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지원신청책임제 동의에 따라 선정자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사업 포기신청기한 내 서울문화재단에 통보해야 함
- 통보기한 이후에라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재심의(이의신청) 제도 운영

- 심의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함 ※ 단,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이의신청 대상
 -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금품향응 수수, 담합,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 ※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이의신청 신청기한 : ~ 5.2.(목)까지

□ 향후 지원사업 수행 시 행정사항

- 선정 후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

- 모든 선정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필요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예술지원사업 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교부됨
- 전년도 사업 정산보고 절차 미완료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
- 모든 선정자는 본 지원사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선정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성과보고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추후 지원사업 관련 위반행위 처리기준과 그 조치내용은 선정자 개별 공문과 사업별 지원금 집행요령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함

4 심의 총평

연극

- ◎ 본 사업에 지원한 프로젝트는 범박하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과 예술 철학 등을 정리하고 역사로 기록하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작품이나 몇몇 작품의 창작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다.
지원서에서 확인한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은 역사, 동시대의 사회 문제, 예술의 본질적 의미의 탐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그 표현 양식도 연극, 뮤지컬, 음악극, 다원 예술 등의 형태로 다양했다. 그만큼 프로젝트도 흥미롭고 독창적인 내용이 많아 숙고를 거듭했다. “단체의 역사와 작품들, 작품의 창작 과정을 왜 지금 2024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가?”에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영상기록물이 동시대 예술계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계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기록의 방법론은 어떠한가, 거기에 담길 내용이 공연예술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상기록물의 활용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인가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많은 지원서가 프로젝트 세부 내용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준 데에 반하여 결과물 활용 계획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 ◎ 본 사업은 꾸준한 작업방향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가 개인의 작업 히스토리 기록이 목표가 되는 지원사업이다. 추가적 재원마련 목적이 더 강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올해 지원 신청한 영상제작의 취지는 크게 극단의 역사 기록과 특정 작품의 다큐멘터리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최종 선정이 4작품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다.
- ◎ 본 사업에 지원한 단체(개인)의 지원 목적은 크게 개별 작품의 창작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제작하려는 목적, 오래된 단체나 연극인의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아카이빙하려는 목적, 단체나 개인의 창작방향성을 점검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계획의 예술적 수월성이 뛰어난가, 우수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제작했는가, 실현가능하며 연극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원단체(개인)의 영상제작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영상기록을 통해 단체의 단순 기록에서 나아가 공연을 다양한 관점(참여예술인, 일반관객, 전문비평가 등)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 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이 일상화되어서인지 영상제작의 기술적인 영역까지 기술할 만큼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하다. 특히 공연 홍보의 목적이 분명한 지원단체(개인)의 경우는 적정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고, 영상 관련 업체의 홍보용 포트폴리오 제작의도가 보이는 경우도 동일했다.

- ◎ 올해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사업의 신청작들은 특히 단체나 예술가 개인의 오랜 작품활동을 다뤄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하고자 한 경향이 많았다. 흥미로운 기획의도와 내용의 충실함이 돋보이는 작품도 많았고, 공연예술계의 산증인으로써 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원서도 있었다. 우열을 다루기 어려운 지원신청서들 중에서 기획의도의 참신성만 갖고는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기에 촬영내용, 촬영일정 및 장소의 구체적 계획, 예산의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에 좋은 평가를 주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중한 기획의도가 묻히지 않길 바라며, 신청하신 모든 예술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무용

- ◎ 팬데믹 이후, 기술의 발전과 시각의 확장에 따른 영상매체 활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용예술의 향유방식에 대한 많은 작업자들의 다양한 고민과 성과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작업철학이 담긴 포트폴리오형 영상제작지원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심분고려하여 심사숙고했다. 공연홍보 혹은 단체(개인) 홍보 위주의 작업 보다는 무대언어와는 차별화된 영상언어 개발과 독창성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유통과 공유방식에의 구체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장르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과 시각으로 영상매체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일부 지원서에는 주제나 방식 그리고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리가 발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 ◎ 기록(아카이브)의 의미에서 공연예술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공연예술의 콘텐츠 확보를 넘어 공연예술의 정체성과 역사성으로서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주는 분야이다. 현대기술과 광범위한 사회망에 따라 질적 향상과 네트워크 확장이 매우 중요하며 소비 가능한 기록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미래가치로 내다보며 기록에 대한 방식과 소비를 대비한 신청 건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 ◎ 이번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사업은 몸에 관한 기록, 움직임 리서치를 통한 예술적 가치 정립, 다큐멘터리 형태의 중장기적인 계획, AI 등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법에서 주제와 소재, 장소, 공간, 신체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있었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볼 수 있었으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예술가와 단체의 대표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작업과 관통하는 예술적 철학과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가로서 일관되게 작업해 온 일련의 과정에서 정체성 확립과 구축하고자 했던 예술적 기반과 과정을 보이며, 작업 철학을 통한 영상 제작이 단체나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앞으로 작업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기대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술적 비전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했다. 따라서 창작자의 세계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목표 의식과 제작 과정에서의 실행계획, 결과를 통해 단체와 개인에게 확장성 있는 명확한 비전이 드러나는 신청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술가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 철학 등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창작공연만큼이나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아카이빙은 2차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자신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 ◎ 창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미디어 기반으로 예술가 고유의 작업세계를 확산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공연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춤담론의 제시, 신작공연과 병행하여 제작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 포트폴리오 영상의 댄스필름화 등 독창성과 확산성을 기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 예술인(단체)의 기존 작업과 예술적 역량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해당 단체의 결과물이 향후 동시대 예술계의 흐름을 담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았다. 아울러 예산기획에 있어서의 적절성과 구체적 실현가능성도 검토했다.
- ◎ 작품 자체의 단순한 영상기록을 제안한 것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작업의 과정 기록을 중시하면서,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신청서도 있었다. 이 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해서 공연예술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기록을 지원하는 형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음악

- ◎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시도로 이루어진 신청서가 많았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영상물 속에서 예술성을 잊지 않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지원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인적인 공연 기록을 넘어 더욱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기록이 되길 바란다.
 - ◎ 전반적으로 콘텐츠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2차 창작물로 만들어 포트폴리오로 쓰고자 하는 기획안이 많았다. 대외적 발신에 있어 영상물 제작이 필수가 된 시대라는 것이 실감나는 부분이었다. 단순한 비하인드나 제작기 보다는 같은 콘텐츠라도 드라마타이즈나 장르 융합 등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보고자 고민한 흔적이 있는 기획안이 인상적이었고,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기획도 눈 여겨 보았다. 더불어 해당 영상물 제작을 통해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해당 장르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획에도 높은 평가를 했다.
 - ◎ 일반적 공연실태 녹화나 홍보용 뮤직비디오 등 공고문에 안내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신청서가 일부 있었으나 그래도 새로운 창작 활동을 영상기록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참신한 계획들이 많았다. 본 사업을 창작 프로젝트 진행의 추가 재원 정도로 생각하기 보다는 다음 단계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도구의 하나로 생각하고,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여러 분야에서 각자 자신만의 활동영역을 구축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에 신청했다. 심의를 진행하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공연예술영상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연에 관련된 제반환경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예술가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연결되기 위한 동시대적 도구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경력을 가진 예술가들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공연예술영상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특히 해당 지원을 통해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청서를 높이 평가했다.
- 다년간 활동 경력을 지닌 예술단체 혹은 안정적인 정기공연을 펼치고 있는 앙상블들의 경우, 리허설 및 무대 뒤편 이야기의 영상화, 예술가들의 음악적 대담 및 인터뷰 영상제작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해당 단체가 현재까지 어떠한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단체 자체의 성장을 일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부는 공연장과 온라인 공간을 종횡무진 누비는 활동방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영상이라는 매체에 익숙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단체의 예술적 실현에 있어 '이미지'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공연예술영상기록'을 통해 영상이 매개된 음악의 재현 및 재해석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영상 기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예술성을 발견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일부는 고유의 음악 및 활동반경을 기반으로 고군분투하나, 현재까지는 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과 어법, 스타일을 차분히 구체화시켰기에, 이번 '공연예술영상기록'을 통해 그들의 음악과 예술성이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 ◎ 지원신청서를 세밀히 검토하여 심의했으며, '체계적인 계획 및 방향성', '본 사업 취지와와의 적합성', '독창성 및 동시대성', '예술적 역량' 등을 중점으로 고려했다.
다양한 장르에서 실력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랜 시간 연주해온 팀은 노련미와 완숙도를, 신생팀은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지원한 모든 예술인들의 예술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에 우리 사회 속 공연예술의 미래가 밝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신청한 많은 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지원자가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획 의도의 타당성, 활동 계획의 구체성, 참여 인력의 역량 및 역할의 적절성, 예산의 투명성 및 적합성, 활동 이력과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전통부터 현대 미학에 이르는 참신하고 도전적인 시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특정 개인의 이력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미래가치를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결과물이 갖는 참신한 예술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또한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이 향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넘어 더 심도 있고 다채로운 예술 창작의 밑바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의 있게 작성한 신청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개인의 히스토리를 정리하려는 목적도 다수에서 나타났다. 실행계획이 구체적인지, 전통예술의 발전과 동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는지도 중히 여겼다.
- ◎ 개인의 회고, 혹은 홍보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것부터 다양한 담론을 찾아내고, 이 시대의 예술로서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예술가들의 창작과정 탐구정신, 그리고 그들의 철학적 고민을 담아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예술가로서의 고뇌하는 방식까지 담은 계획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전통문화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계획서 중에는 그 역사적 전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작하는 영상이 어떤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바탕으로 계획하고 펼쳐나가기를 바란다.
- ◎ 2024 공연예술영상기록지원 사업에 지원한 신청서를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땀 흘리며 각자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작품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이나 현재까지 오게 된 예술가 자신의 여정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과 해외 교류, 전통음악, 창작음악, 작곡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가 지원했다는 점도 크게 눈에 띄는 점이었다. 특히,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수년간 개인이나 단체의 창작과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었다. 특히 단체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인터뷰와 공연영상을 결합하는 방식 외에도 여러 매체들에서 진행하는 방식들을 차용해서, 영상을 접하는 이용자들이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연출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화와 대중화에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다.